

世界人口會議의 義意와 가톨릭의 立場

가톨릭醫大教授 曹 圭 常

一. 世界人口趨勢

20世紀初의 世界人口는 約 16억 5천만이었는데 오늘날의 人口는 38억으로 늘어났으며 21世紀까지에는 65억으로 增加할 것으로서 20世紀의 100年間의 世界人口는 無慮 4倍의 增加를 豫算해 하고있다. 이러한 世界人口를 年間實數로 보면 20世紀初에 있어서는 3천만이었던 것이 現在는 8천만으로 增加하였고 앞으로 20年內에는 1억이 해마다 늘어날것으로 推算되고 있다.

이러한 式의 計算으로 人口가 增加해나 간다면 올해 태어난 어린이가 60세될 때의 世界人口는 140억이 되고 그 어린이의 孫子가 回甲 때에는 500억을 넘을 것이다.

現在 世界人口의 年間 自然增加率은 全人口의 2%인데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最近 數10年間에 있어서의 産兒調節로서 1%내외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0%에 가까운 데도 있는데 反하여 後進國家들에 있어서는 3%를 上下하고있어 심한 隔差를 보이고 있다.

現在 後進國家들이 차지하는 人口는 全世界人口의 約 70%인데 이것이 이대로 增加를 계속한다면 西紀 2000년에 기서는 85%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國家間에 있어서의 이러한 人口增加率의 差異는 人口構成에 있어서도 特色을 볼 수 있다. 즉 先進國家들에 있어서는 産兒調節로서 近年 出生兒의 出生數가 激減하였으므로 14세이하의 人口는 그나라 全人口의 20~25%인데 反하여 後進國家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40~45%를 보여주고 있는 한편 後進國들은 60세以上の 老人의 人口는 全人口의 5%에 머물러 있는데 反

하여 先進國들은 15%까지 增加하여 老人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各國이 人口의 增加를 抑制하기 위하여 한 夫婦가 2名의 子女만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젊은이와 어린이가 많은 後進國家에 있어서는 앞으로 數10年동안은 續繼 人口가 增加할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 自然增加率에 있어 先進國과 後進國間의 큰 隔差를 보이고 있는 것은 先進國은 死亡率의 減少에 따른 出産의 調節이 近 200年에 걸쳐 徐徐히 이루어졌는데 後進國에 있어서는 近年 死亡率이 現代醫學保健의 惠澤으로서 激減한 反面에 出産의 調節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서 온 것이다.

經濟社會의 發展에 따라 어느나라든지 人口는 都市集中化하고 있는데다 現在 世界人口는 30%가 都市人口인데 이것은 10年內는 50%로 增加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따라 資源의 不足과 環境汚染이 앞으로 큰 問題가 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食糧의 不足은 가장 큰 問題로 登場되고 있다. 農業食糧專門家의 見解로서는 現在 世界人口의 2/3인 26억의 人口는 食糧이 充足치 못한 狀態에서 生活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억의 人口는 低營養狀態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食糧事情은 5年前만 하여도 從前에 比하여 數倍의 收穫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쌀의 種子가 開發되어 世界食糧事情의 將來가 樂觀될 것 같이 보이더니 요즘 數年間에 있어서의 氣候異變은 극히 悲觀의인 方向으로 惡化되어 가고 있어 現在 世界食糧倉庫에 貯藏되어 있는 糧穀의 保留量은 世界人口가 1個月 밖에 生活할 수 있는 量에 不過하다고 말하고 있고 世界食糧農業機構(FAO)와 美農務省은 人口過剩으로 後進國

들은 앞으로 10年안에 年間 無慮 7천만 의 食糧이 不足되어 世界가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食糧 危機에 逢着하게 될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

二. 世界人口 會議

지난 8月 19日부터 30日까지 12日間 「루우마니아」의 首都 “부카레스트”(Bucharest)에서 UN 主權下에 열린 世界人口問題會議는 世界가 當面하고 있는 人口의 深刻한 問題를 討議하고 그 解決 方案을 講究하기 위하여 開催되었다.

136個國에서 3천여명의 參席者가 모인 本會議는 1. 人口의 變動과 社會 經濟 發展 2. 人口와 資源 環境 3. 人口와 家族등의 3個議題의 分科委員會와 世界人口行動計劃의 實務委員會로 이루어졌었다. 特히 世界人口行動計劃은 人口增加, 疾病과 死亡, 人口再生産과 家族, 人口分布와 移民 人口構造등의 內容으로서 汎 世界的으로 人口政策을 펼쳐나가는 基本강령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例컨데 現世界人口增加率인 2%를 85년에는 1.7%로 減少시키는데 있어 後進國의 現出生率 38을 30으로 減少시켜 現增加率 2.4%를 2.0%로 내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意圖는 各國의 人口實情과 더우기 經濟社會與件에 差異에 따라 커다란 論爭을 벌리게 되었다. 즉 先進國家들은 食糧과 에너지는 無盡藏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家族計劃을 通하여 人口와 資源의 均衡을 維持하여야 하며 人口의 要因은 經濟 社會發展에 深刻한 障礙가 되기 때문에 生活水準을 向上하기 위하여서 人口調節을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反面 南美와 亞洲·阿洲의 開發途上國家들인 所謂 第3世界는 人口問題는 社會開發에 從屬되는 問題로서 社會 經濟의 與件이 向上될 경우 自然히 減少될 것이며 人口爆發은 低開發로 빚어진 結果이지 人口自體가 原因이 아니므로 人口問題의 解決은 社會 및 經濟의 開發의 促進과 生活水準의 向上 그리고 새로운 世界經濟秩序의 樹立에 있고 西方國家들은 避妊道具를 提供함으로써 後進國에 恩惠를 베푼다는 생각에 앞서 이들에 대한 雇用的 增大·所得의 均等分配와 社會福祉 發展에 힘써야함을 主張하고 나섰다.

現在 國家間에 있어서의 貧富의 差를보면 美

國은 世界人口의 6%인데도 不拘하고 世界總所得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反面 亞洲는 現在 世界 54%의 人口를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世界 GNP는 9%에 不週하다. 따라서 資源의 浪費는 先進國家에서 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貧困의 責任을 開發國家에 미룬다는 것은 不當하다는 것이다. 家族計劃이란 將來計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의 生活도 威脅을 받는 사람들에게다 適用되지 않으며 더우기 貧困할수록 個人이나 家族의 財產은 人力自體이며 生産의 原動力이므로 人口를 消費者로 보는 것은 옳지못하다는 것이다. 本會議에서는 또한 産兒調節에 있어서의 女性問題도 열린 論爭을 벌렸다. 즉 女權伸張論者들은 人口問題에 있어 女性을 「어린이 製造工場」으로 볼 것이 아니라 男性과 同等한 教育과 社會參與가 이루어 질 수 있는 法的地位가 保障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여 世界人口行動計劃에 修正을 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議爭들에는 政治的問題들도 介入되었으나 人口問題解決에 있어 많은 反省點을 던져 주었다.

今般 人口會議에서 많은 파란과 曲折과 修正 끝에 採擇된 世界人口 行動計劃의 內容은 12個項으로서 1. 高度의 出生率을 가진 國家는 85년까지 이를 낮춘다. 2. 開發途上 國家들의 現人間壽命을 85년까지 55세에서 62세로 그리고 2,000년까지는 74세로 延長시킨다. 모든 個人과 家族은 家族計劃의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4. 女性은 社會生活에 있어 男性과 同等한 社會的地位가 保障되어야 한다. 5. 人口問題解決없이 經濟社會發展은 促進되기 어렵다. 6. 先進國家는 後進國家를 희생한 번영과 過多한 消費를 止揚하고 이들을 支援하여야 한다. 7. 또한 先進工業國과 開發途上國家間의 生活隔差를 줄여 高度의 人口成長을 抑制하여야 한다. 8. 國際間의 食糧과 에너지의 圓滑한 供給을 위하여 서로 協力を 增大시켜야 한다. 9. 窮極的인 人口問題解決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國際間의 社會經濟秩序가 이룩되어야 한다. 10. 人種差別·侵略戰爭은 이를 終熄시켜야 한다는등이 包包되어 있다.

이計劃은 當初 家族計劃을 爲主로한 內容보다도 大幅修正된 것으로서 人口問題는 社會 經濟

와 같이 解決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그意義가 있음이 強調되었다.

三. 世界人口會議에 對한 가톨릭의 立場과 國際自然家族計劃聯盟 準備總會의 開催

世界人口會議에서 採擇된 世界人口行動計劃에 對하여 가톨릭을 代表하여 本會議에 參席하였던 로마敎皇廳의 主教團은 이案을 拒否하면서 本行動計劃의 그內容은 人間의 基本倫理에서 出發되고 있지 않음을 指摘하고 모호하고 합당치 않은 表現들이 많을 뿐 아니라 根本的인 要素들 즉 人間生命의 尊嚴性이 排除되어 있음을 指탄하였으나 反面 本會議에서 人口政策이 眞正한 人間開發의 폭넓은 構造속에서 그리고 國際正義에 立脚한 새로운 經濟建設과 所得의 均等化라는 觀點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에 對하여는 全的인 贊意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다.

最近 가톨릭敎會에서도 生命의 尊重과 倫理에 立脚한 가톨릭的인 家族計劃의 方法이 研究되어 왔고 이를 위하여 自然法에 依한 家族計劃事業이 各國에서 實施되고 있던中 世界人口會議을 앞두고 이를 國際機構로서 組織하기 위하여 假稱自然家族計劃聯盟(International Federation of Natural Family Planning) 準備總會가 召集되었다. 臨時 事務總長으로는 호洲의 自然家族計劃機構와 緊密한 關係를 가지고 일하여온 가나다의 란토티敎授(Dr. Claude Lantot)로 美國 Human Life Foundation의 後援下에 가나다의 가톨릭財團과 西獨미제 레올財團의 도움을 얻어 이루어졌다.

現在 自然法에 依한 家族計劃事業을 實施하고 있는 國家는 21個國으로서 本會議가 緊急히 召集된 關係로 13個國(호洲·가나다·코롬비아·英國·佛國·하이트·印度·인도네시아·伊國·韓國·모리샤스·台灣·美國)에서 25名의 代表단이 參席하였다.

本準備總會는 世界人口會議을 앞두고 1974年 8月 8일부터 12일까지 5日間 美國 와싱턴市 近郊에 있는 Stauffer's Natariat Center에서 열렸다.

本會議에서는 本會召集의 趣旨說明에 이어 각

國의 家族計劃事業實情이 報告되었고 本機構 創立을 위한 憲章과 定款에 대한 豫備討議가 있었으며 아울러 世界人口會議에 對한 各國의 情報交換과 가톨릭代表參席에 있어서의 役割을 論議하였다.

世界人口會議에는 本會議에서 美國가톨릭中央協議會 事務局長인 마크主教(Msgr. J.T. McHgh)를 위시하여 8名이 參席하였다.

本準備總會는 끝으로 本機構創立趣旨文을 採擇하고 호洲·가나다·美國代表를 創立總會를 위한 執行委員으로 選出하고 事務局은 와싱턴市에 있는 Human Life Foundation(事務局長 Mr. L. Kane)으로 決定하였다.

創立總會는 印度에서 1975年 11月 또는 1976年 3월에 約 10日間 學術會議과 같이 열기로 하였다.

現在 本機構를 위한 基金은 約 50萬弗이 募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끝으로 本會에서 採擇된 創立趣旨文을 紹介한다.

現代人間은 個人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많은 責任을 지니고 있다.

이를 遂行함에 있어서는 充分하며 自由로운 情報과 敎育이 必要하다.

世界人口의 現增加는 性生活에 있어 人間의 責任을 強調한다.

이問題의 解決은 出産의 調節만으로서 解決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의 再組織·經濟發展과 生活水準의 向上이 隨伴되어야 한다.

우리의 機構는 知識과 自由와 그리고 方向을 調節할수있는 人間의 潛在性의 發展을 위한 敎育의 必要性을 信條로 한다.

이를 위한 우리의 原則과 立場은 다음과 같다.

1. 社會發展의 原動力인 家族의 基本은 男便이요, 아버지인 男子와 婦人이요, 어머니인 女子와 受胎時부터 尊重되어야 할 子女로서 構成된다.

2. 人間으로서의 發展은 繼續되어야 하며 이 過程에 있어 어려움은 克服되어야 한다. 이는 性生活을 包含한 모든 人間의 概念에 適用된다.

3. 性生活에 있어서는 生理的 精神的 心理的 그리고 出産까지 모든 것이 理解되어야 하며 그

리고 人間生活의 모든 面에 있어 完全하여야 한다. 따라서 性生活은 사랑하는 人間關係를 表現하는 것이다.

4. 夫婦의 사랑과 親切 信義 그리고 이들間의 훌륭한 關係는 이들과 그 子女들의 平安을 가져온다. 이를 위한 서로의 知識은 이關係를 增進시킨다.

5. 教育의 過程은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귀를 귀울릴 수 있는 對話로서 情報가 交換되도

록 協力하여야 한다. 故로 夫婦의 關係는 技術의 適用을 위한 責任에 있어서가 아니라 生活에 있어서의 方法으로서 自由로이 選擇되어야 한다

6. 이상을 總合하여 自然法에 依한 家族計劃이란 妊娠週期의 受諾과 夫婦生活에 있어서의 禁慾에 대한 啓蒙을 가지고 父母로서의 責任을 指導하는데 定義를 둔다.

7. 우리機構는 人間과 夫婦의 目的을 理解하고 支持할 수 있는 精神的 價値를 尊重한다.

— 한국 가톨릭 병원협회 —

제12차 세미나 개최

날자 : 1974년 10월 26일

장소 : 말씀의 집 (수원)

주제 : 가톨릭과 인구문제

특강 : 병원에 있어서의 의료사회사업가의 역할

Seminar on Population Problems
and Catholic Church

한국 가톨릭 병원 협회
Catholic Hospital Association of Korea